

# 자살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가?

현재의 극심한 고통은 자살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느낌이나 충동에 의한 선택은 잘못된 경우가 많고 특히 자살이 그러하다. 자살이 자꾸 선택지로 떠오를 때에는 우선, 현재의 고통이 정말 무의미하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인생 동안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 결과, 그렇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자살이 계속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옳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아무리 속고를 거듭한다 해도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자살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유 호 종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생명윤리학과에서 연구하였고, 중등교원, 서울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담당 펠로우 등을 역임하였다. 철학과 윤리학을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썼으며, 죽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 있는 날의 선택》을 쓰기도 했다. 안락사, 치료 중단, 죽음의 기준, 낙태, 사형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글을 썼다. 현재는 사피엔스21(주)에서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 이 원고는 저자의 저서 《죽음에게 삶을 묻다》를 바탕으로 기고한 것이다.

죽음은 보통의 경우 나쁜 것,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죽음이 삶보다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살의 경우이다. 죽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될 때 자연스런 죽음의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앞당겨 죽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6.1명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OECD가 발간한 '2009 통계연보'를 봐도 2007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18.7명으로 OECD 평균인 11.9명을 크게 넘어섰으며, 여성 자살률로는 OECD 국가 중 1위, 남성 자살률로는 4위를 차지했다. OECD 통계국은 한국의 자살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선택에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자살은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이 다양한 만큼이나 자살의 양상도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주로 경제적 파탄, 실업, 질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종류 중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보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살은 고통스럽게 계속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자기에게 낫다는 생각에서 행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살이다. 이렇게 선택의 동기가 자기 이익이라는 점은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우리들 행위의 대부분은 그 동기가 자기 이익 증진이고 이런 동기에 의한 선택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바람직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것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그 선택의 결과가 본인에게 좋은 것이어야 하며 둘째는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살이 이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가요? 고통을 느끼는 건 나인데 남들이 고통을 덜어 줄 것도 아니면서, 누구를 위해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건지…….

삶에 대한 고통은 절절한데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삶에 지쳐

있고…… 더군다나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sup>2</sup>

정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살이 바람직한 선택의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차례대로 따져보자.

## 자살의 손익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살이 고통을 견디며 계속 사는 것보다 본인 자신에게 더 좋다는 자살 희망자 선택자, 꿈꾸는 사람 의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과, 이에 가능한 답변의 타당성을 하나씩 검토해보자.

##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은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죽음 이후 자기는 소멸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무<sup>3</sup>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후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자연사한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자살자는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살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현생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으로 윤회하게 되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자살은 초월적 존재나 섭리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자살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죄에는 벌이 따르듯이 자살이라는 죄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가령 '인생은 견디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인생 형벌론자'들은 자살자는 그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자기 몫의 고통을 자의로 거부했으므로 형기를 채우지 않고 탈옥한 죄수가 이후 더 큰 벌을 받듯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시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자살이 초월적 존재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합리적 이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럴듯하지도 않다. 따라서 자살이 도덕적으로 그러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혹 자살이 초월적 뜻에 위배되어 그른 것이라고 해도 고통이라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지는 의심해볼 수 있다. 인간 세상의 법률에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벌을 가한다. 그런데 자살의 경우 자살자는 그가 사전에 알아보려고 노력해도 자살 행위에 대해 더 큰 고통이 별로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합리적 이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살이 초월자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살 이후 더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자살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살 희망자들의 주장 역시 증명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죽음 이후는 무<sup>無</sup>이므로 고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뇌와 의식의 밀접한 연관성에 근거해서, 두뇌가 파괴되면 정신도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의식의 주체는 존속한다는 입장에서도 두뇌와 의식 활동의 밀접한 연관성을 설명해낼 수 있다. 가령 두뇌를 컴퓨터, 의식의 주체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본다면 죽음은 컴퓨터가 파괴되어 더 이상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던 연산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람은 계속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살 후에도 의식의 주체는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이유에서 초월적 존재는 자살을 금하고 또 자살한 의식의 주체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살자가 그 행위 때문에 벌이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은 세계적 종교를 포함하여 동서고금의 여러 문화에서 발견된다. 또한 죽음에 직면했다 깨어난 사람이 했다고 보고하는 임사 체험을 분석해보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살 시도자의 임사 체험만이 유독 매우 무섭다고 한다. 이 임사 체험이 자살자가 죽은 후 직면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합리적으로 따지더라도 자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가령 불교의 윤회사상이 지니는 함축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벌 때문이 아니라 현생과 내생이 근본적으

로 연속된 것이어서 자살자는 자살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생에서 자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업은 자살 행위로 소멸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업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생을 살게 되며 그래서 같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자. 자살 선택자들은 자살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행하고, 이런 믿음이 참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런 믿음과는 달리 그들이 죽음 이후에 계속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가능성은 자연사의 경우보다 더 커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살자가 그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수많은 인류 문화 속에서 발견되지만 끝까지 고통을 견디고 자연사한 인간이 그 때문에 고통을 더 받게 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나의 존재하지 않음’이 ‘고통받으며 존재함’보다 나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꿈꾸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죽음 이후를 ‘무<sup>無</sup>’라고 믿고 있는데 이들은 또한 고통받으며 살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고통보다는 무가 낫다고 가치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모든 고통을 무보다 못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통 중에는 위험신호의 역할을 하거나 인격적 성숙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고통도 있다. 이런 의미 있는 고통은 무조건 없애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 의미를 실현시키려 해야 한다. 하지만 고통 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통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그런 고통은 무보다 못하다. 그런데 자기가 겪는 고통이 바로 이런 무의미하기만 한 고통이므로 자살하여 무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고통이 시간이 지난 후 또는 행위자가 좀 더 성숙한 이후에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다시 체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인간의 눈으로는 불합리하고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고통도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데도 고통의 의미가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자살을 해버리게 되면 그 고통이 갖고 있는 숨은 의미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

더 나아가 고통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런 고통을 느끼며 존재하는 것이 아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가령 중세 신학자들에 따르면 고통과 악<sup>惡</sup>은 선<sup>善</sup>에 대립해 있는 어떤 다른 실체가 아니라 단지 선이 모자라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악은 선이 완전히 결핍된 무보다는 나은 것으로 가치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선 > 악 > 무가 된다는 것이다.

자살을 꿈꾸는 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그것은 진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의 공허한 관념일 뿐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지독한 고통을 겪을 때에는 누구도 쉽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박대로 누구도 자살을 꿈꾸는 사람의 고통을 쉽게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캄캄한 미로와도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sup>3</sup>

하지만 이런 조심스런 태도와 함께 고통에는 일종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저절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고통은 일단 지나가기만 하면 ‘매우 강렬했던 경험’, ‘견디어 내어 뿌듯한 것’ 등의 다른 모습을 내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걸핏하면 군대 시절 이야기를 입에 담기 좋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의 고통 이야기가 나에게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도 그것이 일단 지나간 것이 되면 이런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나간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그 기간 동안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앞으로의 삶도 계속 고통스럽기만 할 것인가?

현재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살은 결코 자살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도 사람들은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는 여간해서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은 현재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미래도 현재와 같이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살 희망자들의 이런 판단들은 잘못된 것일 경우가 매우 많다. 가령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의 우울한 상태를 앞으로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 자살을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우울증은 약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 저절로 사라진다. 그들 중 대부분은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간에 6개월 이내에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sup>4</sup>

이런 잘못된 판단은 충동적인 자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살 희망자들이 자기 상황에 대해 상당 시간 동안 분석하고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 경우에도 자주 발생한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숙고를 행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기란 근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사회주의권 몰락, 인터넷 보급,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 심각한 저출산, 남아 선호사상의 극복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예측불가능성은 개인의 운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자살 희망자들 중에도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기가 맞게 되리라고 과거에 예측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고 합리적인 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과 인간의 삶은 지극히 복잡하고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인생길은 익숙한 동네 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저 구비 너머에 어떤 풍광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생전 처음 가는 길과 같다. 현재의 고통스런 상황이 예전에는 짐작하지 못한 것이었던 것처럼 미래에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짐작하기 힘들다는 것은 단지 외적 상황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현재의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과거의 나의 방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자기 마음도 항상적일 것 같지만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sup>5</sup>. 더욱이 이런 변화는 자기 의지와 노력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깟 일로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했나?’ 라고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현재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래의 자신이라면 지금보다 좀 더 담담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자신으로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까뮈의 시지프스처럼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올리면서도 ‘모든 것은 좋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자살이 바람직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살한 결과가 자살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자살 선택자들은 자살의 결과가 분명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들의 이런 판단이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줄리엣은 조금만 더 살아 있었어도 ‘자살하지 않으면 계속 로미오의 죽음으로 인한 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는 자기 판단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자살 희망자의 판단이 확실하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살로 인한 죽음 이후 과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극심한 고통은 자살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느낌이나 충동에 의한 선택은 잘못된 경우가 많고 특히 자살이 그러하다. 자살이 자꾸 선택지로 떠오를 때에는 우선, 현재의 고통이 정말 무의미하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인생 동안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 결과, 그렇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자살이 계속 사는 것보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이 옳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아무리 숙고를 거듭한다 해도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자살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판단이 옳은 경우에도 자살이 바람직한 것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연 자신의 자살 선택이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되기에 욕심을 내다가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 자살의 정당성 여부

자살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주로

‘인간에게 자살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쟁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므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살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한다거나 자살은 일종의 살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자살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자.

###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지하는가?

많은 종교는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지하므로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어서 그것을 박탈할 권리도 신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에서는 대체로 자살을 죄로 간주합니다. 비록 점점 많은 교회나 종교에서 자살을 병의 한 증상으로 보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종교에서는 신이 생명의 기적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신만이 생명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주신 것을 멈추게 할 권리는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자살은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죄입니다.”<sup>6</sup>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인간에게 자살을 금한다는 신이나 초

월적 섭리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후자는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우연적으로 결합해 생성되는 자연현상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신과 같은 초월적 섭리가 존재한다 해도 ‘그 존재가 자살을 금하는 것이 분명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 고립되자 신에게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 후 구명보트가 왔으나 그는 신이 구해줄 것이라며 타기를 거절했다. 이번에는 구조 헬리콥터가 사다리를 내려주었으나 역시 신이 도와줄 것이라며 거절하다가 결국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되었다. 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신을 만나자마자 왜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신이 응답했다. “나는 너를 구하려고 구명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거절했느냐.”

자살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뜻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초월적인 존재는 결코 자살을 금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흔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해석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죽은 사람이 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방치한 것에 대해 원망한다면, 신은 “나는 너에게 ‘마지막 비상구’<sup>7</sup>를 남겨두었는데 왜 이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가령 힌두교 중에는 “위대한 성자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부터,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브라만 교도들은

명예롭게 브라만 천국에 들게 된다<sup>8)</sup> 라는 견해가 있다.

이렇듯 자살에 대한 초월적 뜻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진정한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sup>9)</sup>에 비추어보았을 때 가장 납득이 가는 해석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만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이다.

자살을 금지하는 유일신교에서는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거두어들일 권리도 신에게만 있다'라는 주장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이 신에게만 생명을 거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신이 최초의 권리자라 해도 그 권리를 인간에게 위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일신교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 상당 부분의 권리를 인간에게 나누어주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간은 존중받고, 자연을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생명에 대해서만은 신이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유일신교에서는 자살은 신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선한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 이유는 인간에게 생명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살을 하는 것은 신의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이 가치 없다고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 마치 집 주인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며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무례한 행동과도 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납득할 만한 것이기 위해서는, 생명은 어떤 처지에 있건 좋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당사자 역시 자신의 삶에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눈꺼풀도 제대로 깜박이지 못하게 된 루게릭 환자가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 가능하다면 인락사하고 싶어요"라며 눈물을 흘릴 때,<sup>9)</sup> 이런 삶 역시 죽음보다 좋은 것이라고 증명할 방도는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삶은 좋은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극심한 고통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만 살 것이다.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한 이유로 또 하나 많이 거론되는 것은 '인생 형벌론'이다. 삶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플라톤은 영혼이 죄를 지어 이 지상에 유배되어 온 것이므로 형기를 채우듯이 지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어진 만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도 현재 나의 삶은 업보에 의한 것인 만큼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고 본다.

형벌론은 '삶은 결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는데 이것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직관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형벌론자들이 그들을 설득시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지한다는 주장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선물론과 형벌론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럴 듯하지는 않다. 따라서 초월적 존



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지하므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거꾸로 ‘초월적 존재나 섭리가 자살을 금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합리적 이성<sup>이성</sup>에 의존하여 따져볼 수밖에 없지만 초월적 존재나 섭리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이유 때문에 자살을 금지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이성적 탐구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현으로 추앙받는 공자도 5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천명<sup>知天命</sup>했다고 한다. 시간이 더 흐르고 우리의 이성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거나 이성을 넘어서는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초월적 존재나 섭리의 자살 금지 명령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자살도 살인인가?

인간에게 자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살 또한 일종의 살인’이라는 주장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살과 살인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일 뿐, 인간 생명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살인을 할 권리가 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살을 할 권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즉각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은 나와 남이 엄연히 다른 만큼

자살과 살인도 동일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종류의 행위가 자신에게 행해지는가 남에게 행해지는가에 따라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퇴근 후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환영을 받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면 무단침입이 된다. 자기 물건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은 만져도 되지만 남의 몸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행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남에게 행할 때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범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구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남을 죽이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도 그 도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살인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할 권리 또한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와 남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오히려 윤리는 그 근본에 있어서 나와 남 사이의 분리를 인정하기보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역지사지<sup>易思之</sup>’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라는 황금률같이 윤리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격언들은 모두 ‘남도 나처럼’ 대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니 의식적으로라도 남도 위할 것을 윤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남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나와 남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

가 나의 경우와 남의 경우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퇴근 후 자기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나인가 남인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에게든 남에게든 피해를 발생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인지 여부 또한 바로 이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자살과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자살은 자신에 대한 행위이고 살인은 타인에 대한 행위라는 차이점에만 주목해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신 자살이 가져오는 결과가 살인이 가져오는 결과와 같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살인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남은 삶을 박탈함으로써 그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르다. 자살의 경우도 자신의 남은 삶을 자신으로부터 박탈한다. 따라서 만약 이런 박탈이 자신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 자살도 살인과 같은 이유에서 그런 행위가 된다. 문제는 자살에 의한 삶의 박탈이 과연 그 자신에게 해악인가 하는 점이다.

살인의 희생자는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누리길 바랐다. 반면 자살하려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중단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앞서 보았듯이 그 선택이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닌 숙고에 의한 것일 때, ‘그래도 살아 있는 것이 자기에겐 더 좋은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자살은 일종의 살인이므로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결론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라는 입장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죽음 이후는 알 수 없고, 어떤 상태의 삶도 무~~무~~보다 더 가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정당화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자살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자살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신의 금지’나 ‘일종의 살인’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런 근거들과는 다른 것으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더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도 이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자살 중에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자기희생적인 자살이 대표적이다. 가령 산업화의 모순이 심화되던 1970년,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역사적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그의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극심한 슬픔을 주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살 중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도 없이 홀로 쓸쓸히 지내던 노인의 자살과 같은 경우가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죽음은 그 죽음을 아는 사람에게 동정 이상의 큰 슬픔을 주지 않는다. 장례 등 뒤처리를 담당할 공무원 정도만이 그의 죽음을 알 뿐이며, 그들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레 잊게 된다.

반대로 자살자에게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고 자살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그들의 고통은 너무 커서 그것만을 본다면 그 자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살이 아닌 다른 죽음의 경우에도 주위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게 마련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죽게 마련이고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주위 사람들이 언제든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죽은 자가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받는 시간을 앞당겼을 뿐인 자살자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인한 주변인의 고통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는 반론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자살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과 다른 형태의 죽음이 주는 고통이 같은 크기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다른 형태의 죽음에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의 자살로 남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또한 심한 가책에 시달린다. 무엇보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

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로 당겨진 죽음의 시간만큼 남은 가족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다른 형태의 죽음보다 훨씬 크다는 점만 가지고는 자살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자살로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하다 해도 자살 선택자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이를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때의 자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자살 선택자에게 '더 이상 의미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무조건 꼭꼭 견디며 억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쉽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수 경우에서 자살 선택자가 자살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적 고통보다는 당사자의 자살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자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받을 고통에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그 고통의 크기를 제대로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줄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에게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 미안하게 여겨보라지' 와 같은 심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당사자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몇 곱절, 몇 십 곱절 큰 경우가 많다.

예전에 읽은 어느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느 날 작가는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집을 뛰쳐나와 동네 뒷산으로 숨었다. 시

간이 지나 날이 어둑해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흥, 한번 걱정들 해보시라지……’라는 심정으로 버틸 생각이었다. 그러다 밤이 아주 깊어지자 두려움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불호령을 각오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를 본 어머니는 뜻밖에 아무 말 없이 저녁밥을 차려줄 뿐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밥을 먹은 그는 곧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잠에서 깬 그는 방 한쪽에 누우신 어머니가 숨죽여 흐느끼고 계신 것을 발견했다. 비로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를 짐작하고 속으로 같이 울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며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했다는 것이다.

자살이 치명적인 이유는 ‘집에 돌아옴’과 같은 번복이 불가능하며 다시는 안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일단 한번 선택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 것인가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해보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살자의 가족이 쓴 수기나 그 실상을 조사한 자료들도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자살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이 남겨질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한다.

다른 선택들이 그렇듯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살도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자살의 상당수는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살 중에도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삶과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숙고를 거듭한다고 해도 삶의 미래와 죽음 이후에 뒤덮인 안개는 잘 걷히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자살에 대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따진다면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것 역시 바람직한 선택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우리가 계속 사는 것, 고통받더라도 견디며 끝까지 사는 것이 결코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짓도, 도덕적으로 그른 일도 아니라는 직관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이런 원초적인 직관까지 의문시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살을 선택할 때와는 달리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 죽지 못한다면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다.